

[ 바둑 ]

# 루이-이세돌 '性 대결' 펼친다

## 국내 남녀 바둑랭킹 1위...KBS바둑왕전 2회전 격돌



〈루이 9단〉

올여름명인전 3연패 전자랜드배 주작부 우승 등 자타 공인 여류 바둑 최강

국내 남녀 바둑 랭킹 1위간 상대 결이 펼쳐진다. 루이 나이웨이 9단이 최근 KBS 신관에서 열린 제26기 KBS바둑왕전 본선 1회전에서 이상훈 6단을 꺾고 2회전에 진출, 이세돌 9단과 조

우하게 된 것이다. 2회전은 오는 4월께 열릴 예정. 루이 나이웨이 9단과 이세돌 9단의 대결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 시점에서 남녀 최강자의 박매치라는 점에서. 이세돌은 현재 이창호를 제치고 2달째 국내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루이 나이웨이 9단은 사족이 필요 없는 여류 최강자다. 남녀 바둑을 대표하는 기사들답게 목에 건 타이틀도 화려하다. 이세돌은 GS칼텍스배, 불가정보배, 바둑왕전, 맥심커피배, 도요타텐소배 등 5개 국내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루이 나이웨이 9단은 올초 여류명인전을 3연패한 데 이어 전자랜드배 주작부 우승을 차지하면서 1

인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루이는 여류국수전 결승에 진출함에 따라 여류기전 전관왕을 바라보고 있다. 루이-이세돌 카드에 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루이에 대한 기대감이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바둑판에서는 이렇다할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는 지난 1999년 3월 한국기원 객원기사로 국내 활동을 시작한 뒤 제4회 삼성화재배 본선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낸 뒤 제6기 프로여류국수전 우승을 따냈다. 국내 여류바둑계를 평정한 루이는 여성들만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다. 내친김에 이듬해 43회 국수전에서 조훈현 9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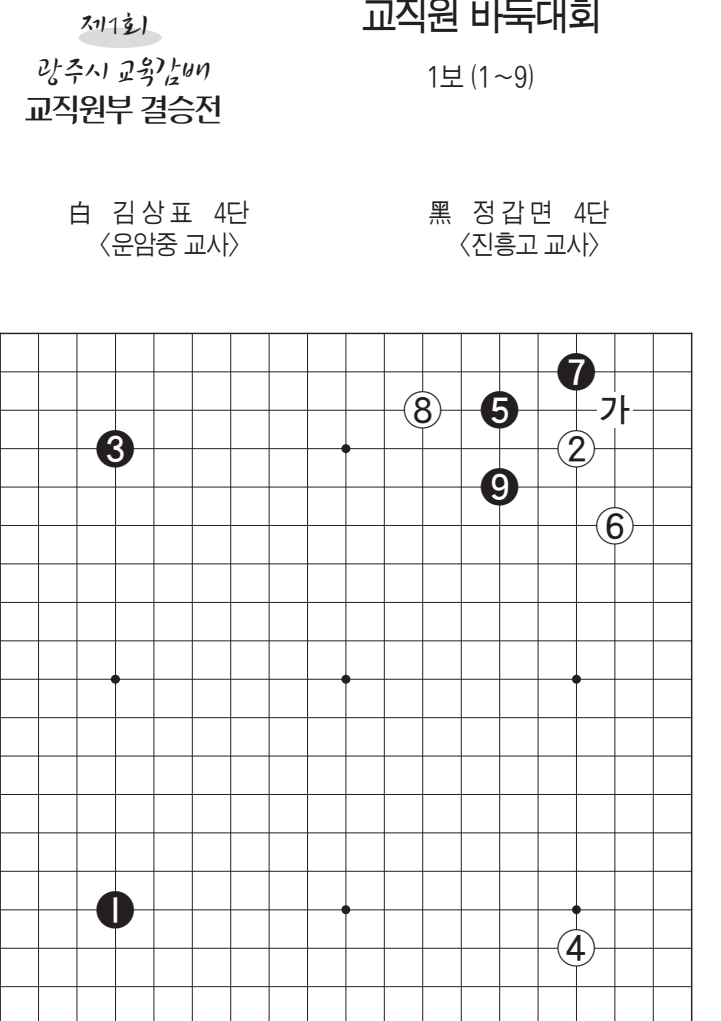
로써 전인미답의 경지를 열었다. 루이는 지난 2004년에는 맥심커피배 입신 연승 최강전에서 결승에서 유창혁 9단을 2-1로 쳤아웃시키고 타이틀을 따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성기를 방불케할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 이세돌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전적을 간추리자면 이세돌이 루이에 다소 앞서 있다. 지난 2000년 9월 제5회 삼성화재배 예선에서 루이를 꺾었다. 지난 2004년 제9회 천원전, KBS바둑왕전 본선 패자 2회전에서 루이를 연거푸 따돌린 바 있다. 그러나 루이도 지난 2000년 9월 제5회 삼성화재배 예선에서 이세돌에게 19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둬으로써 이세돌에게 맞서기도 했다.



〈이세돌 9단〉

GS칼텍스·맥심커피배 등 국내외 타이틀 5관왕 2달째 국내 랭킹 1위 지킴

하지만 이같은 전적은 모두 과거 기사다. 남녀 기사의 자존심을 놓고 격돌하는 루이와 이세돌이 어떤 승부를 펼칠 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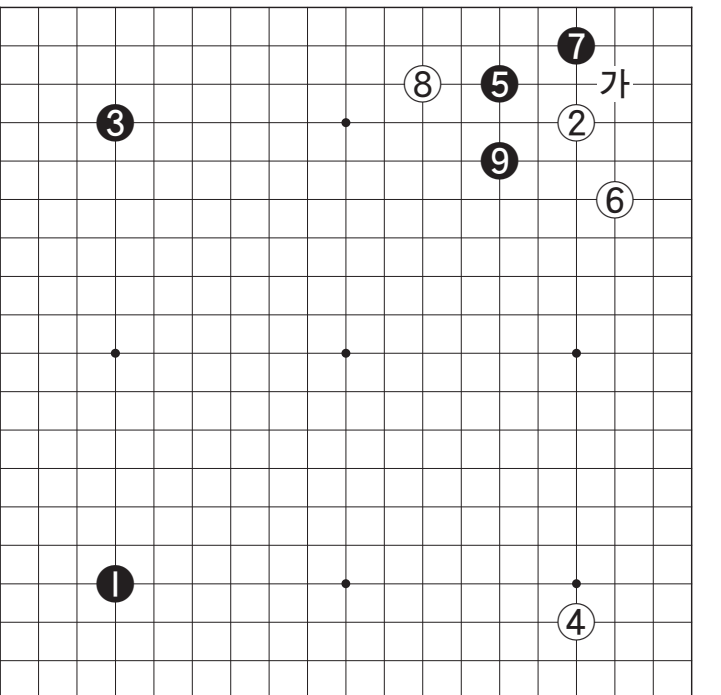


제1회 광주시 교육감배 교직원부 결승전

교직원 바둑대회 1부 (1~9)

白 김상표 4단 (운암중 교사)

黑 정갑면 4단 (진흥고 교사)



# 초등학생들 세계대회 휩쓸다

경기 흥진초 이인수·김남중·김동현 군 세계 토너먼트대회 개인전·단체전 우승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바둑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군포 흥진초등학교 이인수(9·초3), 김남중(9·초3), 김동현(8·초2). (사진 왼쪽부터)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세계 청소년 바둑 선수권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회 세계바둑 토너먼트 대회'에서 군포시 흥진초등학교 이인수(9·초3)군이 개인전 우승, 이근과 김남중(9·초3), 김동현(8·초2)군이 단체전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세계 바둑 토너먼트 대회'는 바둑을 즐기는 아시아권의 각 나라에서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참가해 바둑실력을 겨루는 아마추어 국제대회이다. 2회째인 이번 방콕 대회에는 한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이 참가, 경쟁을 벌였다. 개인 실력 2~5급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유단자인 중·고생들을 물리치고 거둔 쾌거라 참가국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흥진초교는 지난 2004년부터 아이들의 집중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 기성전 도전 3분기 2국 내달 7일 광양서 열린다

현대자동차바 기성전 도전 3분기 제2국이 내달 7일 광양에서 열린다. 국내 랭킹 3, 4위인 최철환과 박영훈이 격돌하고 있는 이번 도전기에서는 현재 박영훈 9단이 1국을 선점한 상황이다. 박영훈은 1승을 추가할 경우 기성 타이틀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섰다. 반면, 15기에 이창호 9단에게서 기성을 획득한 후 2005년 16기 때 박영훈에게 타이틀을 빼앗겼던 최철환은 버림 끝에 몰렸다. 세계일보사가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현대자동차바 기성전의 총 규모는 1억5천만 원이다.

본란에 소개한 바 있는 제1회 교육감배 바둑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뿐만 아니라 교직원부 까지 같이 열려 대회장인 동림초등학교 체육관이 비좁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그동안 어린이대회는 꾸준히 많이 열리고 있지만 타 직종에 비해 바둑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교직원대회는 이 대회가 처음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교직원들의 바둑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예의 제1회 교육감배 결승에는 진흥고등학교의 정갑면 4단과 운암중학교의 김상표 4단이 진출하여 우승권을 놓고 격돌하게 되었다. 요즘은 바둑TV나 각종 바둑매체의 발달로 아마추어도 프로기사에 못지않은 이른바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있다. 또 본인의 노력에 따라 독학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기력을 갖출 수도 있게 되었다. 아마추어의 바둑도 유단자급 정도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벌써 포석이 불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백 8이 김상표 4단의 태클, 일찍부터 변화를 구하여 상대의 기량을 탐색하는 의미처럼 보이는 협공이다. 이때 흑은 '가'로 두면 보통의 진흥고등학교의 정갑면 4단은 노타임으로 9에 뛰어 전투모드를 들고 나온다. 벌써부터 전문이 일고 있는 진행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M관 여자작사, 그 남자 작곡

엔터시네마 1관 입부서니스트

주작부편 극장 1관 입부서니스트

콜롬버스 시네마 1관 행복을 찾아서

총지 아니한가

부광공인중개사 전문주택지 분양 대행

대인부동산컨설팅

금보부동산컨설팅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법원경매 (주)육선코리아